

2026년 1월 1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폭등 이후 에너지 재충전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 12월 CPI,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 2) 뉴욕 연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3) JP모건, 골드만삭스, TSMC 등 해외 기업 실적, 4)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5) JP모건 헬스케어, 6) 한은 금통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쓸림 현상을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480~4,650pt).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반도체 업종 중심의 코스피 실적 추정치 상향 작업의 지속성과 강도가 관건. 이미 연초 이후 코스피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27조원에서 473조원으로 10.8% 상향되고 있는 상황.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8.7%)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모멘텀이 최근 연초 랠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미 단기간에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그 상향 강도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아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연이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주 초반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등세로 출발. 이후 자동차(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모멘텀), 방산(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트럼프 국방비 증액 발언) 등의 업종으로 강세장 확산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KOSPI +6.42%, KOSDAQ +0.25%).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주 금요일 마이크론 10%대 급등을 비롯한 반도체주 랠리,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기대감 속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방산, 원전 등 주력업종 동반 강세를 연출하며 급등세로 출발. 특히, 메모리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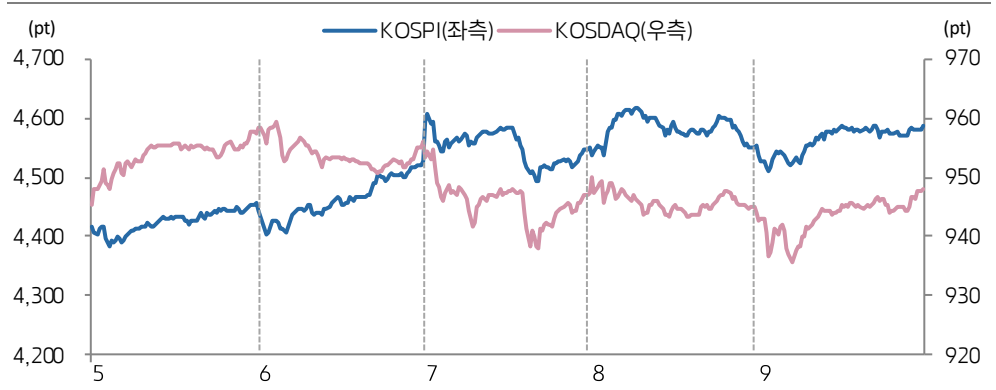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 이후 단기 차익실현 매물 출회 압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 흐름은 지속. 이러한 가운데 CES2026에서의 로보틱스 모멘텀 재부각되며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도 급등세 연출. 그 외에도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트럼프의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할 것"이라는 언급 등에 힘입어 방산주 강세도 코스피 상승을 견인.

국내 증시 내 대표주들이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낙관적인 투자심리 이어지며 고객예탁금은 90조원 돌파하며 사상최고치 경신. 다만,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코스피 내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지속됨에 따라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쏠림 장세는 지속. 지수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더라도 지난주 코스피는 +6.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0.3% 상승에 그치며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극심했다는 점이 확인 가능.

업종별로 운송장비/부품(+17.87%), 기계/장비(+11.72%), 제조(+8.21%), 제약(+8.02%), 전기/전자(+7.47%)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락/문화(-3.8%), 섬유/의류(-2.79%), 종이/목재(-2.41%), 비금속(-2.19%), 보험(-2.18%)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1,043억원)은 KOSPI(+11,043억원), 운송장비/부품(+8,900억원), 금융(+6,962억원), 기계/장비(+5,495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9,075억원)은 운송장비/부품(+8,005억원), 기계/장비(+2,300억원), 금속(+943억원), 부동산(+18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1월 12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 국가 | 경제지표 | 대상 | 전망치 | 이전치 | |
|--------|----|----------------------------------|-----------------------------|-----|-------|----------|
| 1월 12일 | 월 | 독일 | 경상수지 | 11월 | - | 14.8B |
| | | EU |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 1월 | - | -6.2 |
| | 행사 |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15일) | | | | |
| | 휴장 | 일본 (경로의 날) | | | | |
| 1월 13일 | 화 | 미국 | CPI (YoY) | 12월 | 2.7% | 2.7% |
| | | | 근원 CPI (YoY) | 12월 | 2.7% | 2.6% |
| | | | NFIB 소기업낙관지수 | 12월 | - | 99.0 |
| | 행사 | 한·일 정상회담(~14일) | | | | |
| | 발언 | 애틀랜타·리치몬드·뉴욕 연은 총재 | | | | |
| | 실적 | JP 모건체이스 | | | | |
| 1월 14일 | 수 | 미국 | PPI (YoY) | 11월 | 2.6% | 2.7%(9월) |
| | | | 근원 PPI (YoY) | 11월 | - | 2.6%(9월) |
| | | | 소매판매 (MoM) | 11월 | 0.4% | 0.0% |
| | | | 근원 소매판매 (MoM) | 11월 | 0.4% | 0.4% |
| | | 일본 | 공작기계수주 (YoY) | 12월 | 14.2% | 16.8% |
| | | 한국 | 실업률 SA | 12월 | - | 2.7% |
| | | 발언 | 세인트루이스·리치몬드·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 | | |
| | 실적 |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 | | | |
| 1월 15일 | 목 | 미국 | 뉴욕 제조업지수 | 1월 | 1.0 | -3.9 |
| | | | 기존주택매매 (MoM) | 12월 | 2.4% | 0.5% |
| | | | 기업재고 (MoM) | 10월 | - | 0.2% |
| | | 회의 | 한은 금통위 | | | |
| | | 공개 | 연준 베이지북 (오전 4:00) | | | |
| | | 발언 | 미란 미연준이사, 미니애폴리스·애틀랜타 연은 총재 | | | |
| | 실적 | TSMC,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한미반도체 | | | | |
| 1월 16일 | 금 | 미국 | 산업생산 (MoM) | 12월 | 0.2% | 0.2% |
| | | | 설비가동률 | 12월 | 76.0% | 76.0% |
| | 파생 | 미국 옵션만기일 | | |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12월 CPI,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 2) 뉴욕 연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3) JP모건, 골드만삭스, TSMC 등 해외 기업 실적, 4)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5) JP모건 헬스케어, 6) 한은 금통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쓸림 현상을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480~4,650pt).

9일(금) 미국 증시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지연, 엇갈린 12월 고용 결과에도, 트럼프의 2,000억달러 모기지 채권 매입 지시, 반도체 업황 낙관론 재확산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5%, S&P500 +0.7%, 나스닥 +0.8%).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은 증시 중립에 국한된 결과를 제공. 신규 고용(5.0만건 vs 컨센 6.6만건)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실업률(4.4% vs 컨센 4.5%), 시간당 평균임금(YoY 3.8% vs 컨센 3.6%)은 개선되는 등 혼재된 수치를 기록. 이 같은 엇갈린 고용 결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도 연준 정책 변화를 둘러싼 베팅에 소극적이었지만, 13일(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 예정된 12월 CPI의 중요도를 높게 가져갈 전망이다. 지난 11월 CPI 상 왜곡된 데이터(셋다운으로 인한 10월 품목 대부분 누락 등)들이 12월부터 정상화되기 때문.

현재 블룸버그 상 12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의 컨센서스(YoY)는 각각 2.7%(vs 컨센 2.7%), 2.7%(vs 컨센 2.7%)로 형성. 지난달에 이어 2%대 인플레이션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안도요인일 수 있음. 하지만 11월 왜곡된 데이터의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 값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CPI 발표 전후 눈치보기 성격의 단기 변동성 장세를 대비할 필요.

또한 미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도 9일에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외신 상으로는 14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여전히 Poly Market 등 베팅 사이트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일 것이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지만, 실제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상호관세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우회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상호관세 환급 문제(약 1,500억달러 추산) 또한 일시 지급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번주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은 정치, 무역 관점에서는 요주의 사안일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매크로, 실적 이벤트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

이런 측면에서 상기 언급한 CPI 이외에도 12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연준 발언, 한은 금통위 등 여타 매크로 이벤트들도 중요. 사실 이보다는 4분기 실적시즌, 국내외 특정 업종 쓸림현상 해소 정도 등 증시 고유의 이슈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미국에서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실적이 대기 중에 있으며, 이들의 4분기 순이익 마진, 대출 증가율 등을 통해 미국의 경기 방향, 인플레이션 여파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 물론 시주가 주도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주의 증시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음. 다만, 현재 미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잔존해있음을 감안 시, 금융주 실적에 따라 증시 전반에 걸친 차익실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다음 페이지 계속)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코스피 실적 추정치 상향 추세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 이미 연초 이후 코스피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27조원에서 473조원으로 10.8% 상향되고 있는 상황.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8.7%)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모멘텀이 최근 연초 랠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미 단기간에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그 상향 강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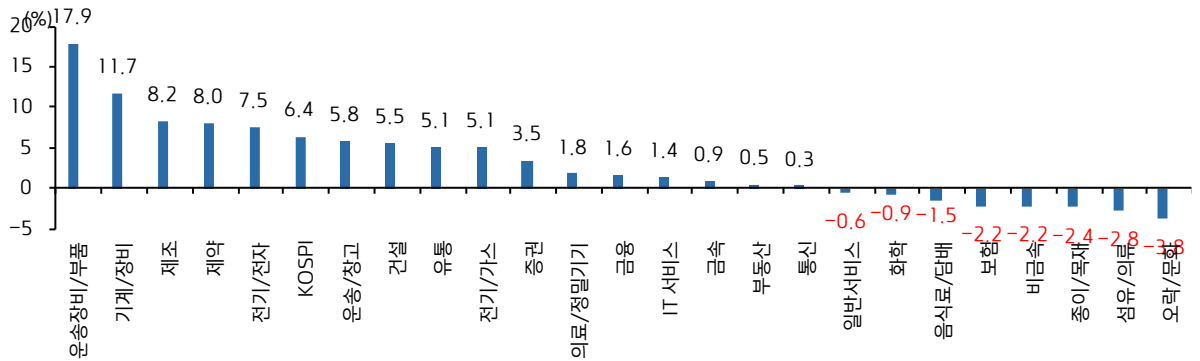
비슷한 맥락에서 쓸림현상 해소 여부도 중요한 사안. 연초 이후 6거래일간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했지만, 이 기간 동안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평균은 각각 316개, 470개를 기록했기 때문. 이렇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은 구간에서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등 소수 업종에만 랠리 온기가 집중됐음을 시사. 개별 고유의 호재성 재료(반도체 슈퍼 사이클, 글로벌 수주 모멘텀, 피지컬 AI 등)가 이들 소수 업종 쓸림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은 사실. 다만,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쓸림현상 해소 욕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연초 급등 업종을 중심으로 주중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출현할 가능성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 시장 | 증가(pt) | 기간별 수익률 | | | |
|---------|----------|---------|--------|---------|--------|
| | | D-1(%) | D-5(%) | D-20(%) | YTD(%) |
| 코스피 | 4,586.32 | 0.8 | 6.4 | 10.7 | 8.8 |
| 대형주 | 4,825.10 | 0.7 | 7.3 | 12.8 | 10.2 |
| 중형주 | 3,741.20 | 1.0 | 1.3 | -3.3 | 0.5 |
| 소형주 | 2,468.01 | 0.6 | -2.1 | -2.6 | -2.0 |
| 코스피 200 | 668.25 | 0.6 | 7.1 | 14.1 | 10.3 |
| 코스닥 | 947.92 | 0.4 | 0.3 | 1.8 | 2.4 |
| 대형주 | 2,322.55 | 0.3 | 0.8 | -0.6 | 3.2 |
| 중형주 | 915.05 | -0.1 | -0.7 | 5.3 | 1.7 |
| 소형주 | 2,604.36 | 0.7 | -0.9 | 1.5 | 1.2 |
| 코스닥 150 | 1,597.81 | 0.1 | 0.9 | -0.3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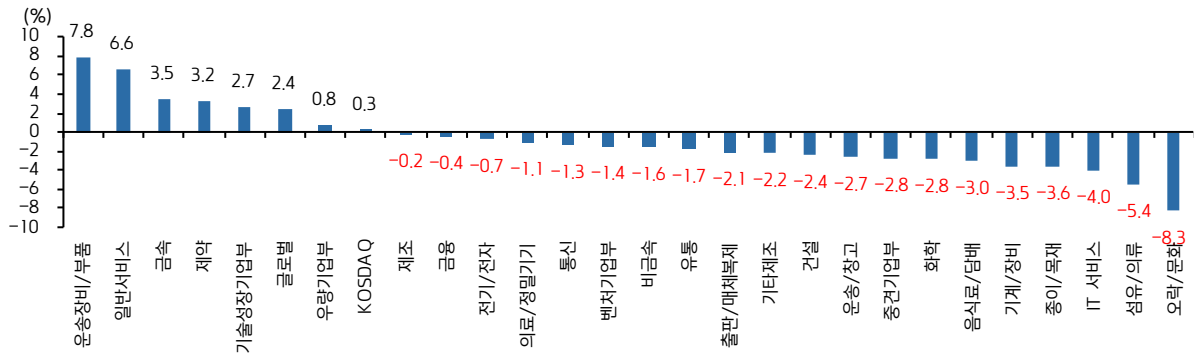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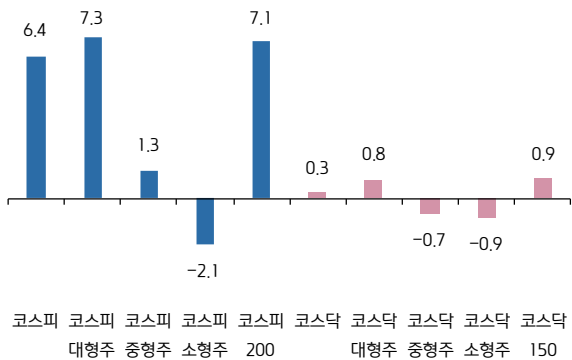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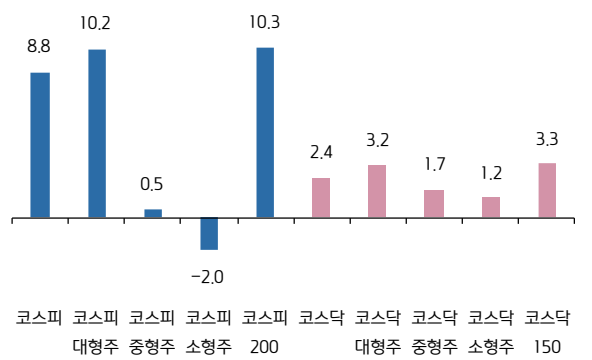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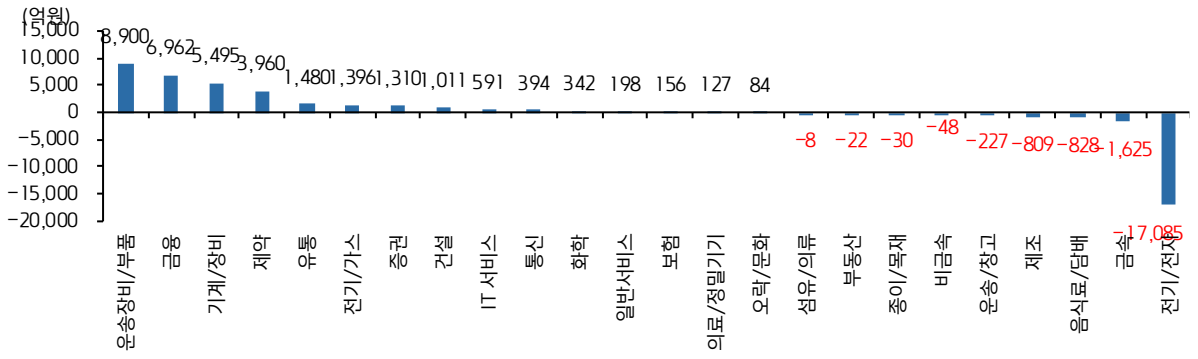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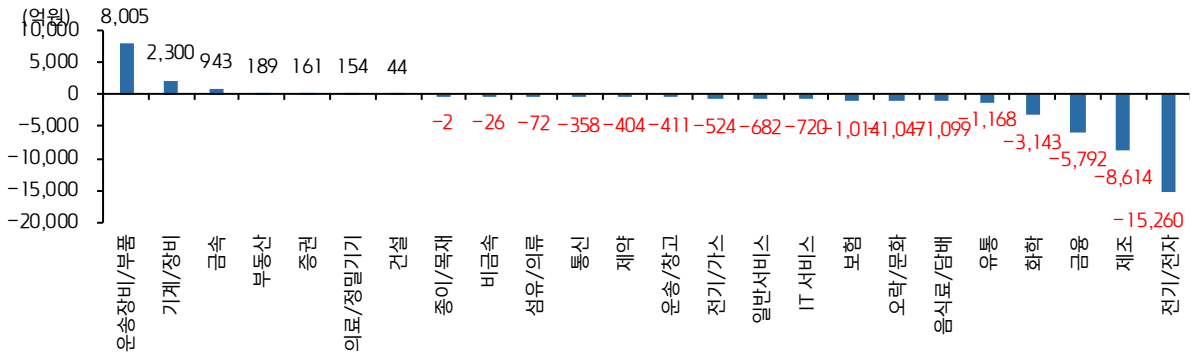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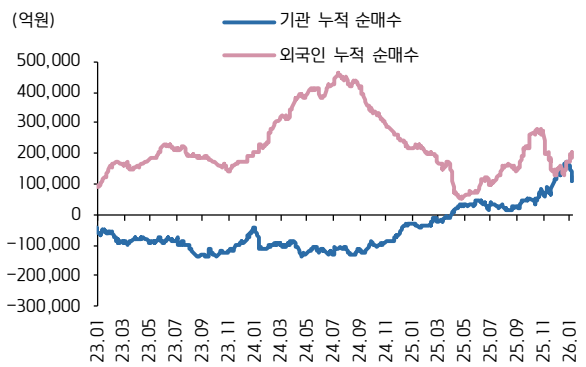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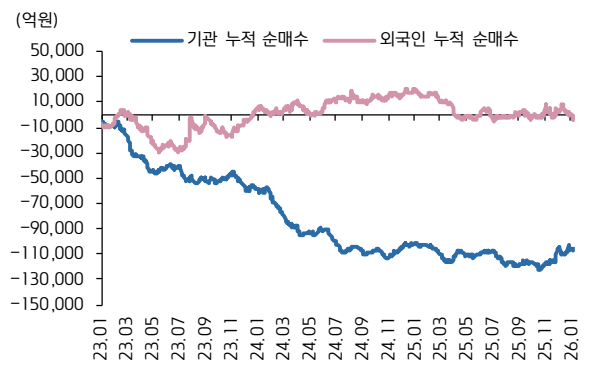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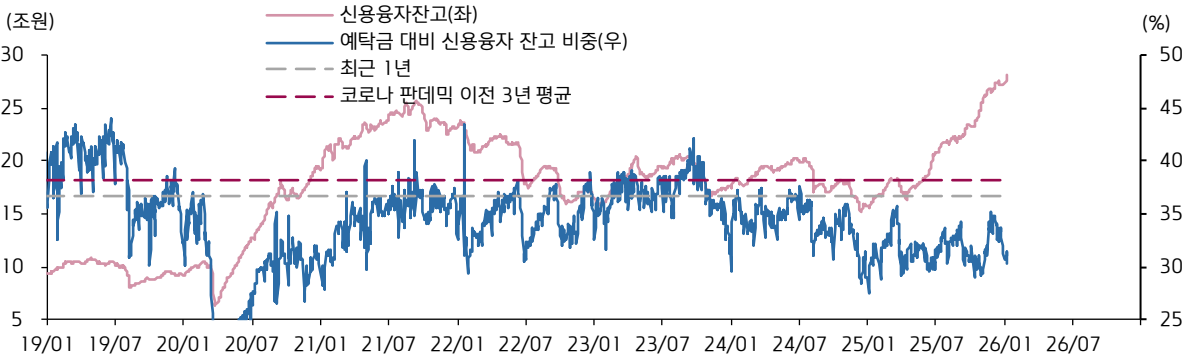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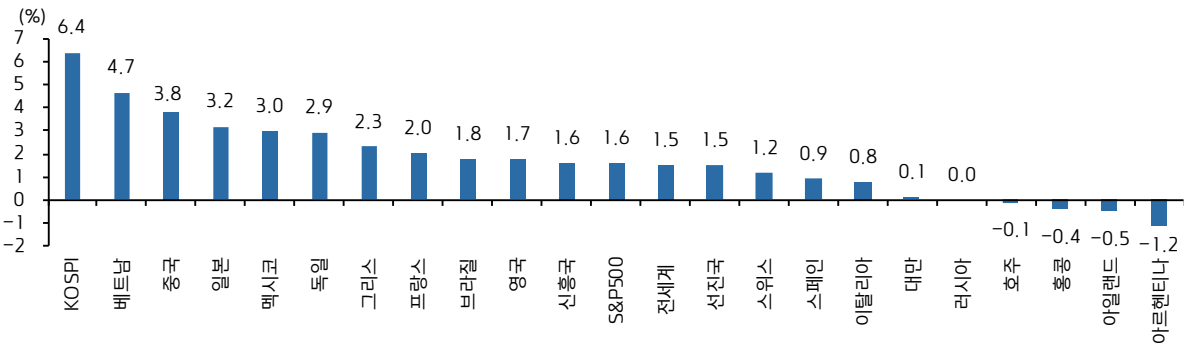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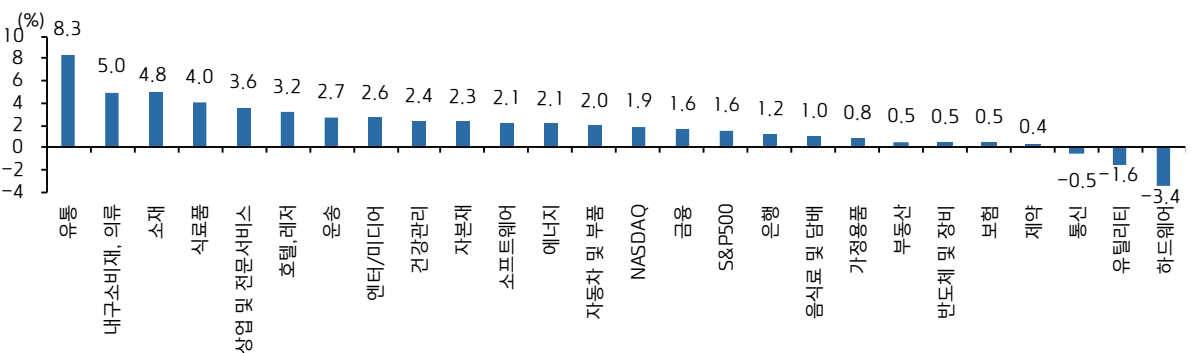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